다시, 집을 순례하다.

1602013 김종영

다시, 집을 순례하다의 책은 내가 읽었던 건축 책 중에서 제일 쉬웠던 책이었다. 이 책은 건축 전공자가 아니라 건축에 관심이 있는 비전공자들도 책을 읽으면 누구나 쉽게 이해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라고 생각한다. 8명의 건축가들의 8개의 작품을 소개하면서 작품을 갖고 건축가들이 어떤 의미로 만들었고 그 곳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의 인터뷰를 통해 각 집들에 대한 매력을 느낄 수 있었다. 이 8개의 작품 중에 내가 평소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건물과 내가 지향하는 작품이 있다. 먼저 평소에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던 안도 다다오 건축가의 스미요시 작품이다. 이 건물은 올해 1학기 설계 수업 때 직접 모형을 만들고 안도 다다오의 관련된 수업을 하면서 알게 된 연립주택이다.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도 아직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전 보다 이 건물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지 알 수 있게 된 거 같다. 먼저 내가 비판적으로 바라본 것은 집안 구조이다. 천장이 뚫려서 2층 방에서 화장실을 갈려면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가야 한다는 점의 불편함이 집이라는 편안함을 배려하지 않는 집안의 구조 공간 그리고 여름에는 더위를 겨울에는 추위를 느껴야하며 외관을 보았을 때 사각형 매스의 딱딱한 노출 콘크리트의 형상이 나에게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안도 다다오가 스미요시를 만들기까지의 노력은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첫 번 째로 천장이 뚫려 안마당에서 들어오는 빛이 노출 콘크리트의 벽을 타서 시시각각 변하는 장면은 안도 다다오의 빛의 연출 성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적으로 개구부에서 들어온 빛을 좋아한다. 시간 마다 변하는 것이 무엇인가 좋은 느낌을 주는 거 같다. 그래서 스미요시의 주택을 보면 안마당 테이블에 앉아 빛만 보아도 무료함을 잊게 만들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두 번 째로 이 스미요시 연립주택의 집안 가구는 안도다다오가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 왜냐하면 그냥 틀에 박힌 가구를 사용하면 이 스미요시 본 주택의 느낌을 주지 못해 직접 디자인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안도다다오는 주방과 식당이 복잡해지는 것을 가구라는 것을 만들어 대처를 했다. 그리고 직접 디자인한 라멘 구조의 테이블과 의자 등 스미요시 주택과 알맞은 가구들이 주택을 더 생기 있게 만든 것 같았다. 하지만 이 책에서 안도다다오의 스미요시 목차인 부분을 다 읽어도 나는 솔직히 스미요시의 연립주택에서 긍정적인 느낌을 못 받았다, 그리고 안도 다다오가 전하고 싶은 느낌도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도 못했다. 하지만 안도 다다오가 이 건물에 대한 애정은 크다고 생각한다. 직접 이 건물에 맞는 가구를 디자인하고 건축주에게 설득 하면서 까지 만들었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안도 다다오의 건물의 애정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또한 이 집에서 현재 거주 중인 아즈마씨 부부도 집에 대한 불평을 갖고 있지만 집을 바꾸지 않고 이 집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을 해서 스미요시 연립주택이 더 생기 있는 건축물로 지금까지 사랑받는 건축물이 아닐까 생각하게 된다.

두 번 째는 내가 지향하는 건축물이자 한 번 쯤 나도 이런 건물을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는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라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건축물 사진을 보면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건물이다. 지형적으로는 평평한 대지의 높은 나무들이 주위에 둘러 쌓여있고 사각형 매스의 전체를 유리로 벽을 만들어 놓고 건물 안에 원통형 벽이 딱 들어 있다. 처음에 보았을 때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작품 판스워스 하우스와 비슷하다 라는 생각을 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미스 반 데어 로에와 필립 존스는 절친 사이었지만 후의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둘의 친구의 관계는 끊기게 되었다. 이에 미스 반 데어 로에는 필립 존슨의 글라스 하우스는 자신의 작품인 판스워스 하우스의 아이디어를 보고 만든 작품이라고 미스 반 데어 로에의 비난이 있었다고 한다. 글라스 하우스의 소개를 하고 마지막 부분에 평면도의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필립 존슨은 미스 반 데어 로에의 판스워스 주택의 자극을 받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필립 존슨의 최초안은 독일 건축가 칼 프리드리히 쉰켈의 작품에서 영향을 받았다고 한다. 글라스 하우스의 변화는 평면도를 보면서 미스 반 데어 로에의 이야기는 계속 언급되지만 사실은 표절을 했다 안했다는 필립 존슨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된다. 그렇지만 내가 보았을 때는 표절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그 때 당시에는 절친 사이여서 각각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마지막 최종안에서는 물 쓰는 공간에 필립 존슨의 취향인 원통형으로 작업이 이어졌다. 그리고 가구 배치로 사각형 평면의 공간을 분할하면서 지금의 필립 존슨만의 주택이 완성 되었다. 최초안의 도면은 1945년이었고 최종안은 1947년 이었다. 그리고 1949년 완공이 되었다. 솔직히 이렇게 긴 시간을 투자해서 만든 도안인지 몰랐다. 물론 글라스 하우스는 필립 존슨이 뉴캐넌 부지를 사서 자신의 취향에 맞는 건축을 만들기 위해 지어진 집이라고 알고 있다. 누군가의 평가를 받지 않고 실용을 따지지 않고 만든 건물이다. 쉽게 이야기를 하면 뉴캐넌 부지에 있는 건물들은 필립 존슨의 취미생활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취미 생활이라고 하기에는 많은 시간과 자신의 자신감을 걸고 착수한 일이이므로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취미가 아닐까 혼자 생각 하게 된다. 이번에 주택 설계도 매우 힘들었는데 그것을 9개씩이나 지은 것이 대단한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필립 존슨처럼 자신의 생각을 건물로 그대로 드러낼 수 있게 취미로 건물을 만든 것이 부럽다. 자신의 생각이 뚜렷하기도 하고 건물 자체가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편안함을 줄 수 있어 아직까지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글라스 하우스는 총 5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완공된 건물이다. 사람들은 흔히 글라스 하우스가 첫 번째 집이라고 하지만 브릭 하우스가 제일 먼저 완공이 되었다. 그 이유는 브릭 하우스의 자리가 설비적 으로 보일러나 순환펌프 등이 지하실에 있어 심장부인 기계실이 있는 건물부터 공사가 진행이 되었다. 필립 존슨은 브릭 하우스가 없었다면 글라스 하우스에서 사는 일은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듯이 브릭 하우스는 글라스 하우스가 존재 할 수 있게 만든 건물이다. 그래서 두 건물이 같은 해에 공사가 진행이 되었고 브릭 하우스가 먼저 완공이 되었다. 약간 브릭 하우스는 글라스 하우스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장식일 뿐이라고 생각이 든다. 그렇게 해서 브릭 하우스의 최초안은 매우 단순하게 만들어졌고 4년 후인 1954년 전면적인 내부공사를 통해 또 다른 모습의 브릭 하우스가 나타나게 되었다. 필립 존슨의 뉴캐넌 부지의 건축물은 우리에게 많은 재미를 주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의 취미를 우리와 공유 하듯이 뉴캐넌의 부지에 있는 건축물들은 글라스 하우스를 보러 오기 위해 그 거리동안 우리에게 길을 안내하듯이 배치 되어있어 보인다. 그래서 각 건물들을 구경하고 있으면 다른 건축물들이 보이기도 한다. 글라스 하우스에서는 서재가 보이고 조각 갤러리에서는 브릭 하우스와 글라스 하우스가 보인다. 또 서재에서는 고스트 하우스와 다 몬스타가 보이면서 뉴캐넌 부지에 있는 건물들 하나 하나가 서로 연결되어 있듯 건축물 전체를 관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필립 존슨은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건축물을 따로 만든 것 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건물들의 연결방식이 하나의 세계와 통하는 멋을 보여주고 있다. 책이나 사진으로 보아서는 그런 감정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 이 뉴캐넌 부지는 꼭 가고 싶다. 글라스 하우스의 느낌을 받고 싶고 조금이라도 필립 존슨의 취미를 같이 느끼고 싶은 생각이 든다. 끝으로 다시 집을 순례하다의 책은 앞서 말했듯이 비전공자들에게 추천 하고 싶었다. 건축을 어려운 학문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로 풀어나가면서 건축가들의 의도를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던 책인거 같았다.